



전남도청 이우리가 13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 이퀘스트리언 콤플렉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페트라 글리아(이탈리아)에게 점수를 따낸 뒤 기뻐하고 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이우리·김지연·이라진 팀은 이탈리아를 가볍게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선수 U대회 금 행진

### 이용대·양학선 이어 펜싱 이우리도 금메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제27회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광주·전남 출신들의 금메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청 이우리(22)는 지난 12일 러시아 카잔 이퀘스트리언 콤플렉스에서 열린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지연(25·익산시청),이라진(인천시 중구청)과 나서 이탈리아를 45-3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출신 이용대(25·삼성전기·경기대 대학원)는 지난 7일 혼합 단체전에 이어 11일 고성현(26·김천시청)과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아이바노프-이반 소조노프를 2-1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대회 배드민턴 종목에 걸린 금메달 6개 중 혼합 복식·여자 단식·여자 복식·남자 복식·혼합 단체전 결승에서 모두 승리해 총 5개의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혼합 단체전에서 활약한 홍지훈(25·경

기대 4년)도 전남대 사대부고를 졸업했다.

2관왕을 차지한 이용대는 “런던 올림픽 이후 짧은 선수들로 세대교체가 잘 됐다. 동기 부여가 될만한 요소가 많아서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 ‘도마의 신(神) 양학선(21·한국체대)은 지난 10일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15.787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사격 남자 대표팀 이대명(25·KB국민은행)·서덕원(상무), 김태영(대구백화점)은 지난 13일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1727점을 기록해 중국(1723점)을 제치고 단체전 금메달의 기쁨을 누렸다. 여자 유도 역시 단체전에서 폴란드를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은 14일 오후 7시 현재 금메달 1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로 러시아·일본·중국의 뒤를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여대 김혜진 양궁 대학 국제오픈 2관왕

광주여자대학교총장배 제16회 한국대학 국제오픈 양궁선수권대회가 지난 12일 광주에서 폐막했다.

지난 8일부터 5일간 광주여대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150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올 시즌에는 국제 오픈대회로 개최되면서 중국·일본·대만 선수들도 참가해 대학스포츠 축제의 장을 열었다.

경기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남녀 개인·단체전에서 총 8개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김혜진은 70m에서도 329점을 쏘며 2관왕에 올랐다. 김한솔·백안나(우석대·이상 1년)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에서는 안동대 구본차(2년)가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배재대 김법민(4년)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체대 김학찬(1년)과 계명대 박진원(1년)은 3위에 올랐다.

단체전에서는 안동대와 계명대가 각각 남녀부 정상을 밟았다. 경희대가 남자부 2위, 한국체대와 호남대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준우승은 순천대, 3위는 광주여대와 우석대학이 가져갔다.

점수가 아닌 표적 중앙을 맞추는 방식인 아카데미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 단체전은 긴장감 넘치는 승부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대학 양궁선수권은 광주여대 출신의 신궁 기보배를 비롯한 임동현, 진재왕, 장혜진(이상 현 국가대표) 등을 배출하며 우수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대학양궁연맹회장은 광주여대의 주자문 총재가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3년째 광주여대에서 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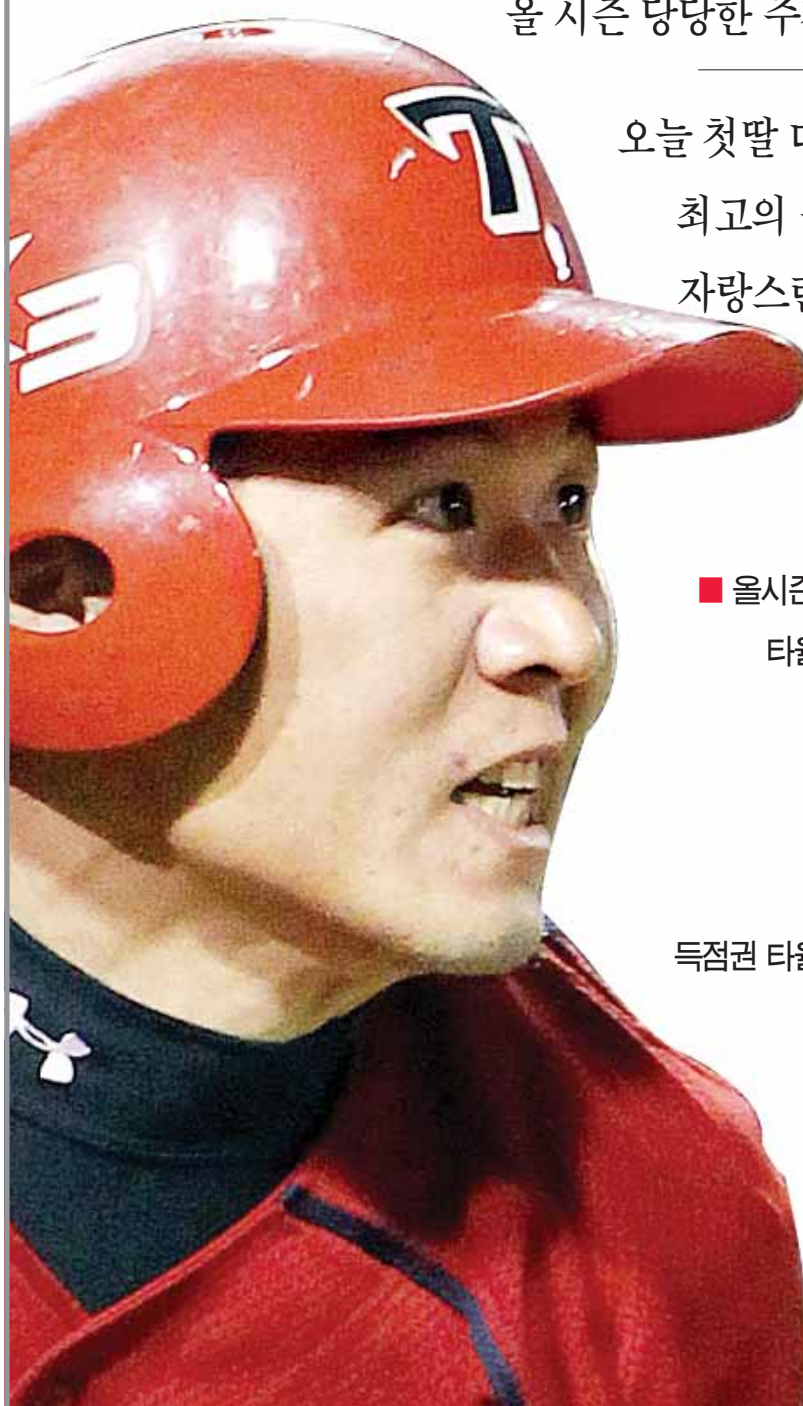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가족이 있기에... 잠재력 대폭발

### 만년 기대주서 KIA 해결사 된 신종길

### 팀 위기때 마다 맹타 올 시즌 당당한 주전꺾차

### 오늘 첫발 다운 돌 최고의 목표는 자랑스러운 아빠



매년 신종길은 KIA 캠프의 스타였다. 빠른 발과 날카로운 배트 스피드로 코칭 스태프의 마음을 흔들었다.

시범경기의 신종길은 팬들까지 설레게 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늘 신종길의 봄은 짧았다. 지난 시즌에도 선동열 감독이 “무조건 안고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개막 한 달이 안돼 신종길의 이름이 조용히 엔트리에서 사라졌다.

신종길의 2013시즌은 극적이다.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외야의 생존싸움, 이용규·김주찬 외에 남은 자리를 놓고 벌여지는 경쟁에서도 신종길의 이름은 나지 안·김원섭·김상현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됐다.

부상이라는 변수가 판도를 바꿨다. 부상병 김주찬을 대신해 긴급 투입된 경기에서 4개의 안타로 6타점을 만들어냈다. 화려한 출발이었지만 기대와 실망의 패턴이 계속됐던 만큼 꾸준함을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신종길이 껴다. 타율 0.360, 2홈런, 24타점, 21득점, 10도루가 올 시즌의 성적표다. 득점권 타율도 0.354, 공·수에서 꾸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달라진 올 시즌 그 뒤에 책임감이 있다. 신종길은 15일 오후 6시 BOCCA(구 그랜드호텔 1층)에서 첫발 다운이의 돌잔치를 연다. 직접 장소를 알아보고 다닐 정도로 ‘말바보’가 됐다.

혼자가 아닌 가족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새로운 이름이 신종길의 변화를 이끌었다.

신종길은 “늘 시범경기 때 페이스가 좋다가 시즌에는 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주전 선수가 아니다 보니 보여줘야 한다.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곤 했다”며 “올 시즌에는 마음이 달라졌다.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된다. 책임감이 생기면서 몸관리가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치열했던 경쟁 속에서도 신종길은 조용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신종길은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1군에 있는 게 우선 목표였다. 이번에는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하자는 마음이었다”며 “투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승부를 할지 우선 생각하고 있다. 원래 공을 오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빠른 승부를 하는 편이다. 비스듬히 치는 스타일인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공을 때리려고 한다. 공을 맞춰야 안타가 되든 상대 실책을 얻어내든 출루를 하고, 진루를 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2번 타자는 그래서 재미있는 역할이다. 신종길은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2번 타순에서 집중하고 야구를 하는 게 재미있다. (이)용규나 (김)선빈이 같이 빠른 주자가 나가면 진루타를 칠 수 있고, 내가 살아나가면 뒤에 중심타자들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 경기에 나가겠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규정타석을 채워 2013시즌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신종길은 “아프지만 말자고 했는데 부상 당했다.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나가면 일단 뛰게 된다”고 웃으며 “부상으로 빠지면 타석이 많이 부족할데 규정 타석을 꼭 채우고 싶다”고 말했다.

더 큰 목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20세 9개월·2004년 9월21일 한화시절)에서 두 번의 기록을 남긴 선수가 되는 것도 신종길의 소원이다.

신종길 “기록을 세울 때 기억이 생생하다. 다른 곳이 아니라 무등경기장에서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고향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나중에 딸이 ‘우리 아빠가 KIA 타이거즈 선수였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올시즌 성적표

타율: 0.360

홈런: 2

타점: 24

득점: 21

도루: 10

득점권 타율: 0.354